

# “3분 거리 놔두고”...무안 오룡지구 중학교 배정 반발

**과밀 이유...40분 거리 학교 배정  
대중교통 부족·통학 안전 우려도  
교육청 “학군 규정대로 이뤄진 것”**

무안 오룡지구 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8일 무안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집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도보로 30~40분 이상 걸리는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와 원거리 배정 문제 제기가 나오

고 있다. 최근 오룡지구 한 학부모는 전남도교육감과 무안군수에게 중학교 재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학부모는 집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무안행복중학교를 희망학교로 지원했지만, 과밀을 이유로 같은 학군 내 무안희망중학교로 배정됐다. 올해 행복중학교는 정원보다 60여명이 초과하면서 해당 학생들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부 희망중학교로 편성됐다. 문제는 통학 여건이다. 희망중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며, 신도시 개발

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노선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 또한 공사 차량이 상시 운행되는 구간이 많아 장거리 도보 통학에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수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주거지를 선택했는데, 행정적 기준만으로 먼 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오룡1지구와 오룡2구를 하나의 공동학군으로 묶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때문에 1지구 생활권에 거주하면서도 생활권이 다른 2지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신설학교인 희망중학교의 학생 수 확보라는 행정적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1지망 선택권과 통학 현실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밀 문제가 원인이라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학급이 부족할 경우 모듈형 임시 학급을 설치하는 방식이 이미 여러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룡지구 인근 행복초등 학교에서도 실제로 운영 중인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 검토 없이 학생을 원거리 학교로 분산 배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의 편의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인 만큼 학교 배정과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무안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현재 배정은 학군 기준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버스 노선 확대를 건의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 영암 관광객 여행비 50% ‘월출페이’로 되돌려준다

**문체부 사업 선정...채류형 관광 유도  
1인당 최대 10만원·2인 이상 40만원**

영암군이 관광객의 여행경비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국책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체류와 소비를 이끄는 제도다. 선정에 따라 영암군을 찾는 관광객은 사전 신청 후 지정된 기간 내 관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관련 업체에서 1인당 1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월출페이’로 환급받을 수 있

다. 2인 이상 동반 여행의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장거리 여행객 유치를 위해 영암군과 인접한 목포·나주시, 강진·해남·무안·화순군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받은 월출페이는 올해 말까지 관내 가맹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인 ‘영암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가 개막하는 오는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환급 기준과 절차는 사업 시작 전 별도로 공지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자체 추진해 온 지역화폐 환급형 관광 인센티브 제도인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의 운영 노하우를 이번 시범사업과 적극



지난 2024년에 개최된 왕인문화축제 왕인행렬 모습. <영암군 제공>

연계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 관광정책은 방문객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고, 그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순환경제 구조 조

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과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을 잘 연결해 영암 관광과 경제에 기여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 “완도 관광지 방문·후기 쓰기 전북 등 특산물 받아주세요”

**郡, 12월까지 ‘열두 달의 설렘’ 등 이벤트**

완도군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 지원 사업과 맞물린 방문 후기 이벤트를 본격 추진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관내 숙박 시설과 식당, 카페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비를 하면 쿠폰이나 완도정장마켓 포인트를 환급해 주는 ‘완도치유페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관광객 혜택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완도, 열두 달의 설렘’ 이벤트를 병행한다. 매월 군이 지정한 추천 관광지를 방문한 뒤 완도도 문화관광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남기면 응모된다. 완도군민을 제외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은 매월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전복을 증정한다. 이달 3월의 추천 관광지로는 ‘정도리 구계동’과 인근 야영장이 지정됐으며, 작성된 후기는 온라인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는 청정한 바다와 숲, 특색 있는 섬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다”면서 “완도치유페이로 알뜰하게 여행하고 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해 특산물도 받아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진도군, 8천억 대형 개발사업 추진 ‘속도전’

**해안일주도로 등 핵심 현안 대책 마련  
진도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총사업비 8천774억원에 달하는 5억원 이상의 주요 개**

발 사업 101건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핵심 현안 사업의 공정률을 살피고, 부진이나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해안일주도로 개설(2천74

억원), 해상·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815억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8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180억원) 등 지역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굵직한 프로젝트들이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정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등 공적 지원 요인

을 철저히 분석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도 병행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요 개발 사업은 진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안전·청렴’ 결의

**재해율 0% 목표·청렴이행각서 교환  
건설현장 안전·공정한 조직 문화 정착**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하구독관리소 대회의실에서 박형수 단장을 비롯해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 및 안전·품질·청렴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관리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재해 발생 사례 등을 공유

했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2026년 재해율 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청렴이행각서 교환식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정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으며, 각 건설현장의 부패 예방 방안과 실무 고충,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박형수 영산강사업단장은 “모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와 현장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 강진군, 고위험 1인 가구 예방 안전망 구축

**행안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선정  
강진우체국 집배원, 70여가구 방문**

강진군이 집배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 주관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천만원과 우체국공익재단 8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천800만원을 투입, ‘강진 따스편지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4일 강진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제

결하고 오는 12월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사진> 주요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1인 가구 70가구이며, 담당 집배원이 매일 2회 직접 가구를 방문해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생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기 상황을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군에 알리며, 면·맞춤형 사례 관리로 연계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총 92(회)의 대면 안부 확인을 진행해 고독사 예방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영광교육지원청, 문화 감수성 UP 청사 내 ‘작은 미술관’ 개관·운영

영광교육지원청이 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인 ‘작은 미술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정병국 교육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미술관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기존 공간과 소장 미술 작품을 활용해 마련된 첫 ‘봄 전시’는 딱딱한 행정 공간을 벗어나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술관은 계절별 주제로 운영된다. 여름에는 지역 예술가 초청 전시, 가을에는 영광 교육 발자취 기록물 전시, 겨울에는 직원 참여형 창작물 전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계절 순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작은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조직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품은 공간으로 변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